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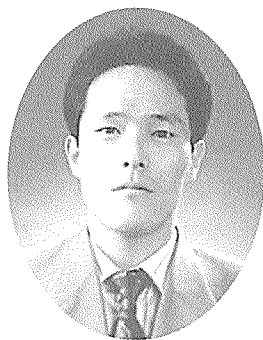
쿠르드족과 석유와의 관계

1. 머리말

오늘날 세계석유시장에서 석유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중앙아시아 산악지역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석유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쿠르드족이 석유가격 변화요인의 한축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걸프 전쟁을 기화로 UN이 경제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전면 금지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금수조치로 이라크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UN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주의 목적의 긴급물자 구호를 위한 제한적 석유수출 재개를 결정하고, 그 조건으로 쿠르드족을 포함하는 이라크 전체국민에게 구호물자를 동등배분할 것을 이라크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라크측은 '주권수호차원에서 거부 입장을 지속하다가, '96. 5. 20일 UN 결의안 제986호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석유수출이 재개되는 듯 했으나, 이라크측의 쿠르드족 공격과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석유수출은 상당기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는 쿠르드족 문제해결 여부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종 섭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화공주사보〉

2. 이라크와 쿠르드족과의 관계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론 왕국이 건국된 세계 최고의 문명 발생지로서 고대로부터 번영해왔으나, 이란족, 몽고족 등 많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1638년 이래 터키의 통치하에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터키에 대한 반란과 함께 민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21년 이라크 왕국이 탄생되고 1932년에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독립왕국을 건설하였다.

쿠르드족은 폰틱산맥과 동부 터키의 토로스산맥에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남부와 아르메니아 가장자리로 해서 북동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 서북부 이란의 자그로스산맥에 이르는 광활한 산악지역에

서 살고 있는 농민과 유목인들로 구성된 민족으로 현재 분리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쿠르드족은 이란의 케르만샤, 이라크의 키르쿠크와 모술, 터키의 디아르바키르 같은 도시로 몰려 들었으며, 여기에서 쿠르드어 신문과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쿠르드족 자치를 역설했다.

1차 세계대전후 1920년의 터키-동맹국간의 세브르 조약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을 약속하는 듯한 기미가 보이자, 자극을 받아 독립운동은 가속화 되었으며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터키(1922~1924), 이란(1930), 그리고 이라크에서 쿠르드족 폭동이 일어났다. 이 세나라에서 1920년대 이래 계속적으로 독립투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쿠르드족 독립투쟁이 이라크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라크내의 쿠르드족 독립단체들의 반정부활동은 50~60년대 이라크 정치불안을 이용한 세력확장에 힘입어 1974년 개헌시 서북부 3개주를 자치주로 인정받았다.

1975년 이란·이라크 협정체결 이후 이란의 대쿠르드 지원중단과 함께 쿠르드 독립단체들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중 재개된 이란의 지원에 힘입어 서북부 자치 3개주를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걸프전쟁 이후 분리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시작하고, 현재 이라크 정

부군과 쿠르드군간의 대치상태는 계속중이다.

3.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미국의 의도

1980. 9. 22 이라크가 이란의 남서부 유전지대를 기습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의 발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그중 하나가 이란의 이라크내 쿠르드족 지원이었다.

이란은 쿠르드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라크내 정치불안이 야기되어 현재 정권을 잡고있는 순니파(이슬람교의 종파)가 몰락하고 이란의 집권층과 같은 시아파(이슬람교의 종파)가 정권을 장악하면, 이란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UN에서 석유 판매 이익금중 일부를 쿠르드족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이라크의 쿠르드족 공격에 대해 미국의 보복공격은 표면적으로는 소수민족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 사담 후세인은 쿠르드 독립단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응징의 강경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91. 4 결포전 직후에는 대규모 반정부 세력 토벌작전을 단행하여 수많은 쿠르드 민간인을 학살

하는 등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은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족에 의해 정치불안이 가중되면 군사 쿠데타 등에 의한 후세인 정권의 몰락이 조기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이라크의 쿠르드족 지원과 세계석유가격

UN이 이라크에 제시한 UN결의한 제 986호('95. 4. 14)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① 180일간 20억\$ 상당의 원유수출 허용 ② 20억\$중 30%는 전쟁배상금, 2천만~3천만\$은 이라크의 비무장을 위한 UN 활동비용, 나머지는 식량, 의약품 등의 구호물품 구매비용 ③ 구호물품은 쿠르드족을 포함한 전체국민에게 동등배분으로 되어 있어 친이란계가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족 자치주에 석유판매금액중 11%인 약 2억2천만\$을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석유수출이 압박한 시점에서 쿠르드족을 침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라크측이 쿠르드족 자치주에서 철수하여 석유수출이 재개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달러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계석유시장에서는 이라크측의 쿠르드족 공격중단과 미국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5. 쿠르드족의 독립과 중동질서

쿠르드족의 총인구는 1천만 정도로 추산되며 터키에 300만명 이상, 이란에 약 200만명(이란 총인구의 8%), 이라크에는 약 290만명 살고 있어 총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이라크에 집중되어 이라크내에서는 서북부 3개의 자치주를 인정받아 활동중이며, 자치주내에 이라크 최대 산유지역인 키르쿠크가 포함되어 있어 이라크는 분리독립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 쿠르드족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석유자원을 이용한 국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양의 원유를 채유할 것이므로 세계석유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석유자원을 이용한 국가의 부흥으로 중앙아시아 산악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쿠르드족의 결집으로 주변국인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란 등과의 국경분쟁이 일어나, 중동정세는 매우 불안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방 지도자들은 쿠르드족 독립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쿠르드족의 독립투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아직 기피하고 있어, 쿠르드족의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